**이름:** 타앚 빠리냐

**제출일:** 2025-06-02

오늘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은 주말 전의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후에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서 옷을 입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아침 8시 28분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아침 8시 30분에 일을 시작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아침에는 물을 마시고 간단한 음식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아서 좋습니다. 회사에 있는 정수기에서 컵에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간식을 하나 집어서 먹었습니다. 아침 업무 시간은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코딩을 좋아하고, 제가 만든 앱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오전 11시 30분이 되면 점심시간입니다. 오늘은 동료들과 함께 말라탕 식당에 갔습니다.

* 말라탕 -> 마라탕

그 식당은 회사 근처에 있습니다. 말라탕은 제가 한국에서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말라탕은 소세지, 고기, 야채를 내가 직접 선택해서 넣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매운맛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매운맛 0.5단계를 선택합니다.

* 말라탕 -> 마라탕, 소세지 -> 소시지
* ‘내가 직접’ 보다 ‘제가 직접’ 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식사를 다 하고, 우리는 오후 12시 10분쯤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12시 30분에는 한국어 공부 모임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임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 기사를 읽고 번역을 도와줍니다. 어려운 단어나 문장은 서로 설명해 주고 같이 공부합니다.

* ‘한국어 공부 모임 시간이었습니다’ 보다 ‘한국어 공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오후 1시부터 다시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앱 개발을 했습니다. 새로운 기능을 생각하고, 코드도 수정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저는 한국어 모임 친구들과 WeCafe에 갔습니다. 몇 명은 바빠서 같이 가지 못했지만, 함께 간 친구들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카페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한국어 회화 연습도 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어서 퇴근했습니다. 회사에서 나와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오늘 저녁은 김밥을 먹었습니다. 돼지고기 맛 김밥이었습니다. 아주 맛있었습니다.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후, 저는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부산항 축제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초량입니다. 그래서 부산항이 가까워서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부산역을 지나서 부산항 공원까지 걸어갔습니다. 부산항 축제는 부산역 뒤쪽에 있는 부산항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축제에는 음식 부스와 기념품 부스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먹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축제에서는 콘서트도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7팀 정도의 가수가 공연했습니다. 조째즈, 도리, 경서, 엔블라잉, 씨엔블루, 있지, 슈퍼주니어-D&E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슈퍼주니어-D&E가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노래와 춤도 멋있었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후에는 불꽃놀이가 있었습니다. 하늘에 불꽃이 펑펑 터졌습니다. 아름답고 멋졌습니다. 저는 사진도 찍고,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 그 중에서 -> 그중에서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밤 10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샤워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한국어 공부를 조금 더 했습니다. 오늘 배운 단어들을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조금 하다가, 밤 12시 45분에 잠을 잤습니다.